

보성군, '전 군민 긴급재난생활비' 지급...공무원 여비 등 삭감

40억 규모 긴급재난 생활비' 오는 26일부터 지급 필수 행정 운영 경비·축제성 예산 등 삭감해 마련

보성군은 오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함께 동참하고 힘써준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40억 원 규모의 '보성군 긴급재난생활비'는 전액 군비로 지급되며, 공무원 여비 등 필수 행정 운영 경비와 축제성 예산 등을 삭감하여 마련됐다.

어떠한 어려움도 군민과 함께 이겨내겠다는 기조로 코로나19 차단에 적

극 대응해온 보성군은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서도 공직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 위민행정이 돋보인다.

특히, 행정 운영 경비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지역 인프라 확충, 군민 여가 생활 신장 등 대규모 현안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성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인 4월 20일 현재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

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4만여 명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는 마을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하여 1차 현장 지급을 실시하고, △5월 3일부터 7일까지는 미수령 세대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공휴일인 어린이날에도 정상 운영한다.

읍·면사무소 접수창구에서 재난 생활비를 수령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1인이 대표 수령 가능하다. 이때, 수령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마을 방문 현장 지급 기간(4.26~30.) 중 읍·면사무소 접수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이번 보성군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통해 가정의 달 코로나19로 힘든 군민여러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과 신속한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보성군장학재단을 통해 1인당 10만 원씩 보성사랑상품권으로 각 학교에서 지급할 계획이며, ▲2021년 3월 31일 기준 보성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소재



읍·면사무소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보성사랑상품권으로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

보성=김택순 기자

그림자 조명 활용한 '여성 아동 안심 귀갓길' 조성

고흥군, 감성문구 LED 그림자 조명 23개소 설치 운영



고흥군은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사업으로 야간 여성·아동·청소년의 왕래가 빈번한 구간에 귀가 안전 보장을 위한 그림자 조명(로고젝터)을 지난해 13개소에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였다.

본 사업은 야간에 귀가하는 군민들에게 따뜻한 감성문구와 이미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마음 편히 귀가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그림자 조명(로고젝터)은 렌즈에

홍보·안내·경고 등 다양한 문구와 이미지를 새겨 LED 조명을 통해 벽이나 바닥에 투사하는 장치로 주민들에게는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범죄자에게는 심리적 경각심을 주어 여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번, 그림자 조명(로고젝터) 이미지는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혼자 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예요. 여성 긴급전화 1366',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문구 외 따뜻한 감성문구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림자 조명의 따뜻한 문구가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아동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택영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봄 조성 튜립 알뿌리 10만개 나눔행사

순천만국가정원서 드라이브 스루 통해 진행



순천시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주차장 일원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를 통해 튜립(알뿌리) 희망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화훼연출 후 꽃이 진 튜립 알뿌리 10만개를 나눔으로써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지쳐 있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물할 계획이다.

또한 전 시민 참여 박람회로 기획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어인 '정원에 삽니다'메시지를 전달하여 정원박람회의 시민 참여 봄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나눔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튜립 알뿌리 꾸러미(20개)를 전달하고, 차로 이동이 어려운 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워킹스루 공간(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도 별도 마련하는 등 동선을 분리하여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동이 다소 취약한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원예치유 효과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6일까지 읍면동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4월 23일에 튜립 알뿌리 꾸러미를 전달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농특산물, 대전 직거래장터 가다

매일 가공제품·재첩국·레드비트차 티백 등 농특산물 선보여

광양시 대표 농특산물이 오는 4월 21~27일 일주일간 대전 직거래장터에서 대전 시민을 만난다.

전라남도가 농수산물 생산·가공업체와 단체의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주최하는 직거래장터는 세이브존 대전점에서 진행되며, 광양시를 비롯한 전라남도 11개 시·군이 참여한다.

행사에는 광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매일 가공제품, 재첩국과 함께 건강한

재료로 만든 발효액과 레드비트차 티백 등 다양한 광양 농산물을 대전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탁영희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농특산물 생산·가공업체 및 단체의 판촉활동이 많이 위축됐지만, 대도시 대형마트에서 진행되는 직거래를 통해 지역 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여수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보육전문가·학부모 함께 건강·안전·급식·위생 4개분야 모니터링

여수시가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여수시 부모모니터링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 중심의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달리 수요자인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부모가 믿고 말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

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전문가 3명,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 4명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고, 지난 8일 역량강화를 위해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단 활동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참관 위주의 모니터링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건강·안전·급식·위생 4개 분야 15개 핵심지표를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 중심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은 여수시 어린이집 141개소 중 열린어린이집과 2019년 모니터링을 실시한 어린이집을 제외한 58개소로, 나머지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여수=오상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